

2017. 11



암환우와 함께하는  
**호스피스 투데이**  
**HOSPICE TODAY**



(En)australianhospice.com.au (Kr)sydneyhospice.com.au • Email:australianhospice@gmail.com • Mob: 0430 370 191 / 0416 758 272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 / 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

암 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꽃 축제 참가(Blackheath Flower Festival, Oct 21, 2017)  
제3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Hospice Volunteer Training, 2017.9.25~29) (아래 좌)  
제1차 헤세드 힐링 전인치유공연(Linburn Nursing Home, Strathfield, Oct. 23, 2017) (아래 우)



**이달의 말씀(The Word of God):**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26) And said, "If you diligently heed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and do what is right in His sight, give ear to His commandments and keep all His statutes, I will put none of the diseases on you which I have brought on the Egyptians. For I am the LORD who heals you. (Exodus 15:26)

월간•통권 3호  
(Vol. NO.3)

Address: 29 Clanalpine St. Eastwood NSW 2122, PO BOX 615 Lidcombe NSW 1825/ Publisher: Rev. Jang Dae Kim



암환자와 그의 제학을 돕는

## 호스피스 투데이 HOSPICE TODAY

2017

11

C · O · N · T · E · N · T · S

### 02 제3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마치며

### 06 ACC/SICA 호스피스 활동

### 07 회계 자료

표지 사진설명



제3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2017.9.25-29)에 이종욱 교수(고려대 의대상임이사, 4대 암 극복관리, KBS 방송 출연, 신경정신과 의사)를 초청하여 암 환우에게 매우 유익한 강연을 가졌다. 암 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연례 행사로 Blackheath 꽃 구경 소풍을 가졌다.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다운 봉사자들의 모습 속에 천사의 얼굴을 그려 본다. 특히 ACC에서는 너싱홈 환우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활력을 공급하고자, 제1차 헤세드 힐링 전인지유(Checed Healing Performance) 공연을 가졌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봉사하시는 인OO 팀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봉사자들이 하나되어 Drama Therapy를 할 때, 눈물을 흘리는 환우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현장을 연상케 하였다. 마치 열 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 당하였던 여인이 예수님의 못자락을 만질 때의 그 모습을....(눅8:44)

## 제3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마치며

- 호주호스피스협회(ACC) 대표 김장대 목사  
(Ph.D. 경희대학교, 시드니대학교)  
(www.sydneyhospice.com.au)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전히 Youtube 에서 흘러나오는 설교와 간증을 듣는다. 그런데 이날 따라 아내가 듣는 Youtube 가 조금 다르다. KBS 방송에서 방영하는 “강연 100도C”란 프로그램이다. 자세히 들어보니 4대 암을 겪고 계신 분이 암 관리에 대하여 간증하고 있다. 자신이 의사로서 암 환우가 겪는 우울증과 같은 심적 고통을 이겨나가는 경험을 말하고 있다. 나는 올해 9월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는 제3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종욱 교수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다. 바로 이 분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이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의 초청강사라는 확신을 가졌다. 나는 호주 호스피스협회에서 돌보는 80여명 암 환우의 회복을 기대하며, 한국을 방문하여 이종욱 교수님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였고, 전화로 감사 초청의사를 밝혔더니 ‘호주까지 티켓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셨다. 그러자 나는 “우리 호스피스는 모두가 자원봉사자이므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자비로 호주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3일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셨고, 나는 기도하며 전화를 기다렸다. 8월 20일 주일 오후에 호주를 방문하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다. 그리고 나는 8월 25일에 부산 고신대 복음병원과 호주호스피스협회(ACC) 간의 MOU를 체결하고, 9월1일 고신대 복음병원 호스피스 센터 장이신 방사선 전문의 정태식 교수님과 함께 호주에 도착하여 곧바로 암 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행사에 참석하여 야외 강연을 가졌다. 최초의 야외강연에 40여명이 참석하여 좋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다. 정태식 교수님도 자비로 방문하여 강의를 하신 호스피스 사역에 헌신적인 분이시다.

이종욱 교수님은 호주를 처음 방문하시는데, 나는 직접 만나 뵈는 적이 없어 공항에 봉사자(0권사님)와 함께 마중을 나가서 이름티켓을 들고 있었고, 처음으로 서로 만나서, 우리는 미리 예비해 주신 봉사자(0권사님)덕에 숙소를 정하였다. 헌신적인 권사님의 봉사로 숙소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런데 환우이시므로 식사가 걱정이 되었지만, 음식은 가리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하였다.

9월25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호스피스 찾아가는 콘서트”가 오후 2시에 있었다. 50여명의 호스피스 봉사자와 70여명의 환우가 함께 어우러진 천상의 코이노니아와 같았다. 이종욱 교수님은 의학도이면서 음악에 조예가 깊으셔서 약 30년간 교향악단 지휘를 하시다가 장길자 여사님을 만난 베테랑 음악가이시다. 그런데 이종욱 교수님이 “내가 30년간 콘서트를 이끌어 왔지만 이런 콘서트는 처음이다”라고 감탄하셨다. 연거푸 너싱홈 환우와 직원들이 다시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모든 봉사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아름다운 결과였다.

9월26일 이종욱 교수님의 첫 강의가 시작되었다. 원래 30명 모집광고를 내었는데, 청강생을 합쳐 34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27일 둘째 강의 시간에는 50여명이 참석하여 한인연합교회 강당에 보조의자를 놓아야 되었다. 셋째 날 한인간호협회 회장과 부회장의 유익한 호주의료정보에 대한 강의와 함께, 마지막 날 입관체험을 마치고, 오후에 First Aid (CPR) 교육을 하였다. 무료 First Aid (CPR) 교육에 30명이 지원하여 29명이 수료하였고, 제3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에는 제3기 수료생 21명과 제1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9명이 참석하여 총 30명이 연수교육을 마쳤고, 제1기 순회원목과정에 2명이 수료하였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을 마치고 모든 봉사자들로부터 소감 문을 받았다. 그 중 두 분의 소감 문을 소개하며, 암 환우를 사랑하는 모든 고인들이 어두운 한 구석을 밝혀나가는 호주호스피스협회(ACC)의 자원봉사에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

## 편집실\_호주호스피스협회

## 제3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수료자, H 봉사자

일을 그만 두고 봉사를 하고 싶어 여기 저기 알아보았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포기 하고 있다가 신문을 통해 호스피스라는 단어가 내 눈에 들어왔다. 말로만 들어왔지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 호기심이 작동했다. 원서를 접수 하고 자리에 앉아 분위기를 파악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인지 아니면 관두어야 할 자리인지 생각을 했다. 첫날 오전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Macquarie Park에 있는 Shalom Centre 에 가서 14차 ACC Hospice Concert를 가졌다. 처음으로 참석해서 진행 상황을 지켜 보고 있었다. 다들 아픈 모습으로 이동식 침대에 의지하여 들어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이 안 서러웠다. 댄스가 나오고 흥겨운 음악에 몸을 실어 움직이고 싶지만 몸을 말도 듣지 않고 마음만 살아 움직이고 얼굴에는 행복함이 가득한 모습들 ...

처음 참관하는 자리이라 옆에서 지켜 보고만 있었는데 옆에 계신 한 할머니의 눈길이나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 눈길을 피했다. 그리고 한참 있다 다시 쳐다보니 또 쳐다 보고 있는 그 눈에는 나하고 놀아줘... 나도 춤을 추고 싶어... 라는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용기가 없어 다가 갈 수가 없었다. 그 할머니의 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피해 뒤에 앉아 있었다. 한 참 있으니 필리핀 간호사가 그 할머니 손을 붙잡고 춤을 추어 줬다. 할머니의 얼굴은 복사 꽃처럼 환한 얼굴로 행복해 했다. 나는 보았다. 그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

너무 부끄러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비겁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싫었고 한없이 작아지는 나의 모습이 보잘것 없었다. 그 동안 일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미용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세상에 나와보니 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꿈은 실버 타운을 세우는 것 이었는데...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노년기의 삶을 그리고고 아픈 사람들의 삶을 좀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담학과 호스피스 사역은 조화가 잘 되는 것 같다. 이 분야에서 열심히 해 보자.



위) First Aid (CPR) 수료생

아래) 제3기 자원봉사자 교육-이종욱 교수 강의

## 제3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수료자, S 봉사자

늘 섬김만 받고 남을 섬기는 일에는 전혀 문외한 이었던 나에게는 뜻 깊은 교육 시간이었다. 더군다나 3남매 중에 막내 딸로 태어나서, 53세 지금까지도 85세의 엄마의 섬김을 받고 살아왔고, 피가 모자라 수혈을 받으면서 목에 혹 수술과 자궁 적출 수술, 3번의 재왕절개를 하면서 남편과 아이들, 주위 분들에게 돌봄과 섬김만 받으면서 살아왔던 나에게는 53년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한 가정의 어리광만 부리던 막내 딸이, 또 한 가정의 병약하여서 혼자 아이들을 돌보지도, 살림도 하지 못하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자리가 되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종욱 교수님 강의 중에 “받은 삶은 이루는 과정이고 주어야 하는 삶은 누리는 과정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동안 받기만 하고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삶을 누리기 위해 지금까지 삶을 이루고 있었구나, 아! 이제 받은 삶을 통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받는 삶도 중요하지만 주어야 하는 삶은 누리는 것으로 더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우리 엄마는 늙지 않으신다는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항상 우리 엄마는, 어렸던 나에게 멋지고, 여장부 같은 이미지로 지금까지 각인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고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었다. 나이는 85세이지만 여군1기, 6.25 참전용사, 보험회사 소장님, 누가 봐도 어장부이시고 지금까지도 모든 살림을 다 하셨던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심장병이 있으셔도, ‘우리 엄마는 강한 어머니시니까 괜찮으실 꺼야’ 라고 생각하였기에 이렇게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이제는 심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폐에 물이 차고 숨이 가쁘고, 드시는 것조차 힘들어 지게 되신 엄마를 보면서 마음 한 구석이 짝~ 해지면서 가슴이 미어지듯이 지려왔다. 씩씩하고 강한 엄마가 하루 아침에 할머니가 되어버리셨다.

이런 혼란했던 상황에 이번 호스피스 교육을 받게 되었다. 교육받은 내용을 지금 엄마에게 실습하고 있다. 교육만 받으면 금방 잊어버릴 까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습 대상을 주신 것 같다. 엄마는 이렇게 호강 받기는 처음이라고 너무 좋아하고 계신다. 강의 내용처럼 외롭지 않게 해드리려고, 매일 같이 아이들과 찾아가서 곁에 있어드리고, 아픈 걸 잊어버리시게 다같이 힘써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있어서 도움은 늘 받는 것이라고... 힘든 와중에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나의 사고..., 도움은 주는 것이며, 받는 것 보다는 주는 것이 행복하고 보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된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경험이고 배움의 자리였다.



## Jehovah-jireh, God!

I am always hearing sermons and testimonies as my wife plays them on Youtube. But this particular day, the video that my wife was watching on Youtube was different. It was a program called "Lecture 100 C" which aired on KBS. From this program, a doctor shared about cancer patients' experience through depression and cancer treatments. I was preparing for the 3rd Hospice volunteer training from September 25th to 29th this year, and I finally heard Professor/Dr. Lee Jong-wook's testimony. I was convinced that God had chosen him as a special lecturer for this hospice volunteer education.

I visited Korea and inquired about Professor/Dr. Lee Jong-wook's contact information and over the phone, invited him to come speak at our hospice volunteer education session. He asked "how can I buy a ticket to Australia?" Then I said,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would be able to afford your own flight ticket to Australia with your own finances as all of our volunteers were financially struggling". He said that he would reply to me in three days. I prayed and waited for a call. On Sunday afternoon, 20th of August, I received a message from him that he will visit Australia, then I prayed a prayer of thanks to God. I signed an MOU between the Busan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and the Australian Hospice Association (ACC) on August 25. I arrived in Australia on 2nd of September with Professor/Dr. Tae Sik Jeong, a radiation specialist at the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and Chairperson of Hospice Center at the same hospital. I attended the beach walk event with Professor/Dr. Tae Sik Jeong and he gave an outdoor lecture. More than 40 people attended the first outdoor lecture to share and learn valuable information regarding cancer. Professor/Dr. Tae-sik Jeong is devoted to the ministry of hospice as he lectured at his own expense.

I have never met Professor/Dr. Lee Jong-wook in person so I held a welcome sign with his name on it at the airport on September 24. His accommodation was arranged to be at a senior deacon's house. However, I was worried about his meals because he was an 80 years old and cancer patient. However, he was able to eat meals fine without being opinionated.

The "Hospice Concert" was held at 2 pm on the 25th of September. 50 hospice volunteers and 70 nursing home residents were together forming what was like a heavenly koinonia. Professor/Dr. Lee Jong-wook is a veteran musician who met his wife, Jang Kil-ja while conducting medical symphony orchestra for about 30 years. However, he admired, "I have been leading the concert for 30 years, but never been to a concert like this one." I was asked by the Baptist Care staff members to come back and perform again. All the volunteers did their best in their place and the grace of God made a beautiful result.

On September 26, Professor/Dr. Lee Jong-wook's first lecture began. 30 advertisement flyers went out but there were 34 people who attended. On the 27th, during the second lecture time, about 50 people attended and we were forced to place extra chairs in the hall of the Korean United Church. On the third day,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 of the Korean Nursing Association of Australia gave a lecture on Australian medical information and in the afternoon of the last day, we received a First Aid (CPR) training. 21 participants who completed the hospice volunteer training and 9 current volunteers participated in the course. 2 people completed the visiting chaplain course in the first round. After finishing the hospice volunteer training, I received a testimony from all the volunteers.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o two of them. I expect that all the people who love cancer patients join the volunteer work of the Australian Hospice Association (ACC), which aims to shine lives of cancer patients amidst darkness.

### Third term Australian-Korean Hospice Volunteer Completion of education, "H" volunteer's testimony

I wanted to quit my job and serve as a volunteer. I was looking for a volunteer work everywhere but I could not find a place I could volunteer to so I decided to give up. But then, the word 'hospice' came into my eyes through the newspaper. I have heard of the word 'hospice', but I did not know what it was. I curiously accepted the application form of ACC Volunteer training and sat down to figure out the atmosphere of the organization, ACC, and I thought that I will then make a decision whether it was a place I should be or should not be. On the first morning, after the orientation of the training, I went to the Shalom Center in Macquarie Park and had a 14th ACC Hospice Concert with volunteers. I attended for the first time and watched the progress. Every resident were sick and as I saw elderly people being moved by a portable bed, I was saddened. I could recognize that when exciting music came on, their hearts and faces were full of happiness and desired to dance, but their bodies did not listen...

I was on the side watching but then I realized an elderly woman was looking at me. Her gaze seemed to speak to me...asking me to play with her...to dance with her... however, I didn't have the courage to hold her hand so I went to the back. After a while, a Pilipino nurse grabbed the elderly woman's hands and started to dance with her. The elderly woman's face lit up like a flower. Her face reminded me of Jesus.

I felt so embarrassed and that I should not be there. What can a coward like me do? I felt myself getting smaller. I thought that all I knew how to do was doing beauty and running a beauty shop but now I have realized that in this world, there are so many other things to be done. My dream was to build a silver town...but now I feel that God is leading me to be a hospice worker. If I finish the counseling course that I am now studying at a seminary, I would like to serve in the hospice ministry helping the elderly and sick people's life become more peaceful. Let's work hard together.



위) Blackheath 꽃구경과 함께 식사 후 체조  
아래) 헤세드 힐링: 암 환우와 함께하는 드라마 치료 (Cheched Healing Drama Therapy)

**Third term Han Hospice volunteer completion education, "S" volunteer's testimony**

It was a meaningful and educational time for me, who was always in their serving from outsiders all the time. In addition, I was born as the youngest daughter of three siblings and is 53 years old now. But I still live with the help of my 85-year-old mother. I had a blood transfusion and surgery on the neck and hysterectomy. I have been living under the care of my husband and children. My 53rd year, was a time for me to look back and reflect on my whole life. I am so thankful that although I was the youngest daughter, who received a lot of care from others, I am now able to return the care to others.

In the lecture of ACC volunteer training, Professor Lee Jong-wook said, "The life of receiving is a process of giving, and this life of giving gives you enjoyment." I realized that now, I've been just receiving from life and others, but now I have learned that giving is much more precious than receiving.

Another thing I realized is that my mother is not getting any younger. As a young child, I always viewed my mother as a youthful, beautiful heroine. She was the first female of 6.25 veterans and CEO of an insurance company. My mom, who is a heroine for me is now admitted to a hospital. Even if she has a heart attack, I always thought, 'My mother is a strong mother and she'll be fine.' Now, the function of her heart weakened, the lungs are filled with water, the breath is difficult, and when I see my mother who has found it more difficult to eat, a part of my heart cries and pounds with grief. It felt like a strong mother became an elderly grandmother within one day!

In this confusion, I was given this hospice volunteer training. I am practicing the training with my mother now. It seems that God has given me a practice patient for the training. My mother enjoyed this service and treatment I was practicing with her. I now am enthusiastic around my mother, making sure she doesn't feel lonely. One of the lecture taught me to forget about the illness and be with my mother.

Lastly, I realized that in the midst of hard times and struggles, giving is still more precious. This hard times had taught me this. ([www.australianhospice.com.au](http://www.australianhospice.com.au))

**History of ACC**

23/10/2017 First Cheched Healing Performance (Linburn Nursing Home, Strathfield)  
 25~29/9/2017 Third Korea-Australia Hospice Volunteer Training and First Aid Training  
 25/9/2017 14th Hospice Concert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2/9/2017 Special guest speaker, Dr. Tae Sik Jung (Clifton Gardens, 1pm)  
 14/8/2017 1th ACC General Meeting of Members (Zino's Korean Restaurant, 3pm)  
 12/8/2017. 13th Hospice Concert (Uniting Thomas Roseby Lodge, Marricville)  
 10/7/2017. 12th Hospice Concert (Jesmond Aged Care, Strathfield)  
 12/6/2017. Chairperson/Public Officer Rev Jang Dae, Kim signed agreements (MOU) with Anyang Sam Hospital  
 5/6/2017. 11th Hospice Concert (Columbia Aged care, Strathfield)  
 8/5/2017. 10th Hospice Concert (Cooinda Court, Baptist Care, Macquarie Park)  
 25/4/2017 ~ 27/4/2017 Second Korea-Australia Hospice Volunteer Training: Kye Myung  
 University, Dong San Hospital Hospice  
 10/4/2017. 9th Hospice Concert (The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ellyville)  
 20/3/2017. 8th Hospice Concert (Meredith House Nursing Home, Strathfield)  
 20/2/2017. 7th Hospice Concert (Woodlands Nursing Home, Cherrybrook)  
 20/1/2017. 6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Estia Nursing Home, Ryde)  
 31/12/2016. 1st Hospice Mother's Award (Prize Winner: Keum Gui Lee, Ji Soo Jang, Jung Ok Jang)  
 22/12/2016. 5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Baptist Care, Shalom Centre)  
 3/12/2016. Year End BBQ Party (Manly Beach)  
 30/11/2016. 4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Summer Hill Nursing Home)  
 15/10/2016. Picnic (Breakheath Frower Festival)  
 28/9/2016. 3rd Nursing Home Visit Concert (Baptist Care, DHL Centre)  
 26/9/2016~6/10/2016 First Korea-Australia Volunteer Training First Aid Training (18 Trainees)/  
 Graduated 13 people among 24 students  
 3/8/2016. NSW Fair Trading Registry (INC1601021)  
 Chairperson / Public Officer (Representative): Jang Dae Kim  
 Treasurer: Jung Hee Song, Secretary: Soon Ja Sung, Audit: Cheol Ho Cho

**DONATIONS**

Do not withhold good from those who deserve it, when it is in your power to act. (Proverbs 3:27)

**Bank Name: Westpac Bank**

**Account Name: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ccount Number: 032-069-53-7515**

# << ACC/SICA 호스피스 알림 >>

ACC/SICA 호스피스에서는 암 환우와 그의 재할을 돕기 위해 봉사자들과  
매주 토요일 바닷가 걷기를 하고, 또한 암환우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특별종교기도회를 갖고,  
예약 상담 및 전화 상담, 그리고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환우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찾아가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CC/SICA 호스피스는 모든 회원이 자원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8)

## ◎ ACC/SICA 호스피스의 발자취

- 2017.10.23 제1차 헤세드 힐링 전인치유 공연 (Linburn Nursing Home, Strathfield)
- 2017.9.25 제3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 교육 (특별초청강사: 이종욱 교수) 및 First Aid Training(전체 50명 참가 30명 수료(제3기 21명, 제1기 9명)(First Aid (CPR) Training: 29명 자격취득)
- 2017.9.25 제1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 2017.9.2 특별초청강사: 방사선 전문의 정태식 박사 (Clifton Gardens, 1pm)
- 2017.8.25 부산복음병원과 호주호스피스협회(ACC) 협약 체결(MOU)
- 2017.8.14 제13차 ACC-SICA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Uniting Thomas Roseby Lodge, Marricville)
- 2017.8.12 제5차 시드니호스피스회(SICA) 정기총회 및 제1차 호주호스피스협회(ACC) 정기총회  
결의사항:  
시드니호스피스회(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orporated, SICA, ABN 87 157 916 417)를 부속이한 사정으로 폐쇄하기로 함. 호주 호스피스협회(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CC)에 기증 함. "Committee"의 한글명칭을 "상임운영이사회"로 하고, 그 구성원의 직위에 대한 한글 명칭과 임원은 아래와 같이 정함.  
대표(Chairperson/Public Officer): 김장대사무총장(Treasurer): 송정희 부대표 (Secretary): 성순자 협동사무총장 및 감사 (Audit): 조철호
- 2017.7.10 제12차 ACC-SICA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Jesmond Aged Care, Strathfield)
- 2017.6.12 안양 샘 병원과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및 협약체결 (MOU)
- 2017.6.5 제11차 ACC-SICA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Columbia Aged Care, Strathfield)
- 2017.5.8 제10차 ACC-SICA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Cooinda Court, Baptist Care)
- 2017.4.25 제2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대구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4.27
- 2017.4.10 제9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The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ellyville)
- 2017.3.20 제8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Meredith House Nursing Home)
- 2017.2.20 제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Woodlands Nursing Home)
- 2017.1.20 제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Estia Health Nursing Home)
- 2017.1.9 ACC Home Page 개설(www.australianhospice.com.au)(영문홈페이지)
- 2016.12.31 제1회 호스피스 어머니 시상식 (수상자: 이금귀, 장지수, 장정옥) (ACC/SICA 공동 주최)
- 2016.12.22 제5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Baptist Care, Shalom Centre) (성탄축하연예예배, ACC-Baptist Care)
- 2016.11.30 제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Summer Hill Nursing Home) (ACC/SICA 공동 주최)
- 2016.9.26 제1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전체 24명 참가 (13명 수료)  
특별초청강사: 전재규(대구동산병원 의사/한국호스피스협회 설립자/분회 고문)  
김경환(대구동산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15년경력) (ACC/SICA 공동 주최)
- 2016.9.28 제3차 추수감사주간 음악회(Baptist Care, DHL Centre) (ACC/SICA 공동 주최)
- 2016.9.26 호주정부 무료 First Aid 자격 교육(18명 자격 취득)
- 2016.8.20 제4차 정기총회 (장소:모지식당(Strathfield) 오후 3시)  
결의사항: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ACC)(호주 호스피스 협회) 설립(ABN: 17 110 189 115): 시드니 호스피스(SICA)는 제8차 Committee에서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CC)를 설립하기로 의결하였고, 호주 전역으로 호스피스 사역을 넓히고자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설립을 총회에서 추진 함.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초대 임원(Committee Member) 선임: Chairperson/Public Officer(대표): 김장대 Treasurer (재정): 송정희, Secretary(총무): 성순자, Audit(감사): 조철호

2016.5.9 제2차 아버지 주간 음악회(Baptist Care Shalom Centre)

2016.1.1 SICA Home Page 개설(www.sydneyhospice.com.au)

2015.12.28 제1차 성탄 송년 음악회 (Baptist Care Shalom Centre)

2015.10.24 제3차 정기총회 (장소:모지식당(Strathfield) 오후 3시 30분)  
결의사항: 정관에 명시된 Committee에 대한 정확한 한글 명칭이 없이 "운영위원회" 혹은 "이사회"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조직운영에 혼란을 가져왔으므로 제3차 정기총회 이후 한글명칭 "이사회"는 해산되고, 정관에 명시된 "Committee"라는 영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새로운 Committee Member를 발기하 한, 별칭으로 AICA (Australia Institute of Cancer Aid)를 사용하기로 함.

2015.9.30 대구 동산병원 호스피스회와 상호교류협약 체결(MOU) (김장대 목사 대표 자격으로 한국방문 협약체결)

2015.9.25 부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과 상호교류협약 체결(MOU) (김장대 목사 대표 자격으로 한국방문 협약체결)

2015.8.10 사무실 이전 St Phillip's Anglican Church (29 Clanalpine St. Eastwood NSW)

2015.8.8 제2차 임시총회(장소:모지식당, 의제:김장대목사 대표선임) (대표(Chairperson, Public Officer): 김장대목사 선임, 96% 찬성)

## 이전 연혁은 홈페이지 참조

## ◎ 암환우의 필요를 도와 드립니다

암환우 상담은 요청시 언제나 가능하며 가정 방문도 가능합니다.

- [정기상담] • 일시: 월, 화, 수요일 10:00~16:00
- 장소: 본회 사무실
- 문의: 0430 370 191 / 0416 758 272 (전화로 상담시간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헤세드 힐링 자원봉사자 모집

암 환우의 회복과 심리치유를 위하여, 그리고  
너스름 환우들과 기쁨을 함께하는 음악 재능 봉사자와  
드라마를 통하여 환우들의 심리적 회복과 치유를  
나누고자 드라마 재능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연락처 0430 370 191/0416 758 272

## ◎ ACC/SICA 호스피스와 해외협력기관

- 부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복음병원 호스피스 센터 (대한민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정기려 박사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기독교 병원)
- 대구 동산 호스피스회 (1899년에 미국 선교사 존슨 의사에 의해 제종원(濟衆院)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대구 최초의 근대병원)
- 안양 샘 병원 (한국 기독교 의료선교의 요람 - "질병을 치유하지 말고 사람을 치유하라" "웃 고칠 질병은 없다. 다만 웃 고칠 사람이 있을 뿐이다")

## ◎ 암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 대상: 암환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Circular Quay 3번 부두
- 준비물: 도시락, 물
- 연락: 0405 317 843(송정희 리더)/ 0430 370 191

## ◎ 제1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 장소: Southern Cross Nursing Home, 16 Vincentia St, Marsfield NSW 2122

• 일시: 2017년 11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

## ◎ 제2차 호스피스 헤세드 힐링 (Checed Healing) 공연

• 장소: Ainsley Aged Care, 23A-25 Grantham St, Burwood NSW 2134

• 일시: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 ◎ 제1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대회

• 장소: 본회 사무실 홀 (29 Clanalpine St. Eastwood, NSW 2141)

• 일시: 2017년 11월 20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잔석식 제공)

소식지 ACC 회계자료 (09 / 2017)					
수입			지출		
이름	금액	항목	항목	금액	비고
Robin Kim	200	Donation (은행)	통신비	69.35	
sica B to Acc	2300	이동	인쇄홍보비	317.25	
JONGSOON KIM	100	Donation	차량유지비	49.95	
c	1200	Donation	관리비	0	
SoonDo Yang	10	MEMBERSHIP FEE	식대및부식비	60	
Sung Taek Yun	40	MEMBERSHIP FEE	경조비	0	
sica B to Acc	2932.2	이동	행사및세미나	1725.7	바닷가걷기야외강의콘서트및3기교육
Soonja Sung	110	MEMBERSHIP FEE	사무용품	605.86	3기교재및교육준비
JangDae Kim	110	MEMBERSHIP FEE	회계사변호사	1000	회계사 (Tax )
Elhis Kim	10	MEMBERSHIP FEE	보험료	0	
Sarang Kim	10	MEMBERSHIP FEE	water	0	
Sang Woong Sim	120	MEMBERSHIP FEE	First aid비품	50	1box
Kyung Ah Kim	3000	Donation	지출Total	3878.11	
T-shirts	45				
Chul Woong Choi	100	MEMBERSHIP FEE			
Jung Bun Kang	20				
INTEREST	0.13	ACC Westpac			
수입 Total	10307.33				
SICA 회계 자료					
6/09/2017	Sydney light salt	\$300			
*3기교육기간 강사님 교육생 식사제공 및 Donation					
날짜	아침	점심	저녁		
주일 ( 24/09)	성순자		김종순		
월요일 (25/09)	인성실	김종순 김소미	김종순		
화요일 (26/09)	인성실	인성실.신경아	정애선		
수요일 (27/09)	인성실	박옥분 . 김미예 . 박자영 . 양순도	인성실		
목요일 (28/09)	인성실	송정희 . 양사비나 . 이지행 . 채순자	채순자		
금요일 (29/09)	인성실	호스피스	성순자		
토요일 (30/09)	인성실				
*강사님 시티 관광티켓 : 김소미					

● 본 회의 기부금은 호주정부세금감면혜택(DGR)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 입금 계좌명 및 계좌번호

후원 계좌명(Account Name):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Bank	BSB No.	Account No.
Westpac	032-069	537515
NAB	082-451	68-612-2677

\* 정성어린 후원금은 ACC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주요 활동

삶과 죽음이란 두 갈래 길에서 어떤 치유가 지혜로운 선택일까 갈등하며 힘들어 하는 환우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합니다. 환우의 신앙과 무관하게 그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호스피스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환우의 필요를 돕기도 하지만 할 수 있다면 환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지혜로운 방향을 선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다 나은 치유의 효능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신 창조원리에 의한 치유방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치유되고 있는 많은 극복자를 소개해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나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바른 삶이 치유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암 환우와 그 가족을 섬깁니다.
  - 가능한 범위에서 통역지원, 환우와 함께하기, 환우와의 상담지원, 환우와 가족을 위한 필요 돕기 등등
2. 암환우의 치유에 도움을 드립니다.
  - 투병중인 환우나 암을 극복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여드립니다.
  - 암환우의 회복에는 심리치유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하여 암환우와 함께 웃음치유, 미술치유, 음악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암환우와 가족들을 즐겁게하여드립니다.
3. 암환우와 그의 가정의 회복을 도와 드리며 교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 암환우와 함께 바닷가 걸기를 실시함으로 연약한 암환우의 건강이 회복되며 그의 가정이 소망으로 회복되는 되는데 기여합니다.
  - 암환우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바닷가 걸기를 함으로 교민사회에 봉사정신을 고취시키고 교민 사회에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합니다.
4. 호스피스 자원봉사와 성경적 의학 교육
  - 약한 자를 돕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기법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실질적 프로그램으로 정기교육과 비정기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5. ACC/SICA 홍보활동
  - ACC/SICA 활동의 홍보는 정성어린 교인들의 기부금과 교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하여 이뤄 지고 있습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호스피스 투데이(Hospice Today)"란 명칭으로 월간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 암환우에게 새소망을 주고 교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년 1회이상 특별 공연을 실시합니다.
6. 임종과 장례지원 및 남은 가족을 지지해드립니다.
  - 형편에 따라 겸소한 장례가 치러지도록 도와 드립니다.
  - 환우가 떠난 후 남은 가족들이 속히 슬픔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고지혈증 예방>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혈액 내에 특정 지질이 증가하여 고지혈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만이나 술, 당뇨병 등과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다.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일부에서 합병증이 발생하면 그와 연관된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혈액 내에 중성지방이 크게 증가하면 체장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체장염의 증상은 복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일부 환자의 경우 아킬레스건에 황색종(xanthoma; 콜레스테롤이나 이와 함께 다른 지질(脂質)이 피부에 침착하여 생기는 황색의 종양)이 생길 수 있다. 눈꺼풀에 황색판증(xanthelasma; 눈꺼풀에 생기는 가장 흔한 황색종의 형태)이 나타나기도 한다. 식이요법으로는 섭취하는 지방량을 총 섭취 칼로리의 25~35%로 제한한다. 특히 쇠기름, 돼지기름 등의 모든 동물성 기름과 버터, 쇼트닝, 코코넛 기름과 땅콩 등의 포화지방산은 전체 칼로리의 10% 미만으로 제한하고, 오메가 3계 지방산(주로 등푸른 생선, 참치, 삼치, 광치, 고등어, 연어, 청어, 송어, 정어리 등에 들어있음)과 오메가 6계 지방산(옥수수 기름, 면실유, 해바라기씨 기름 등)으로 구성된 다가불포화지방산(polyunsaturated fat)은 총 칼로리의 10% 이하로, 올리브기름, 땅콩기름, 카놀라유 등에 많은 단가불포화지방산(monounsaturated fat)은 총 칼로리의 20% 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중성지방이 증가하고 HDL-콜레스테롤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건강 상식

**ACC-SICA**  
Australian Cancer Care Inc 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

- ◎ 발 행 처: ACC/SICA 호스피스 협회
- 비영리 단체등록법인(ACNC):  
ACC(ABN:17 110 189 115)
- 주소(Add.): PO BOX 615 Lidcombe, NSW 1825
- Mob: 0430 370 191, 0416 758 272
- E-mail: [australianhospice@gmail.com](mailto:australianhospice@gmail.com)  
or [sydneyhospice@gmail.com](mailto:sydneyhospice@gmail.com)
- Web: [www.australianhospice.com.au\(Eng\)](http://www.australianhospice.com.au(Eng)) /  
[www.sydneyhospice.com.au\(Kor\)](http://www.sydneyhospice.com.au(Kor))
- 발행날짜(Date of Issue): 2017년 10월 29일
- 발행(Publication)/편집(Edition): 김장대(Rev. David Kim)
- 인쇄(Printing): JC 우리인쇄소